

고정근무간호사와 교대근무간호사의 건강상태와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 미 혜¹⁾ · 김 현 주²⁾ · 한 영 미³⁾

서 론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24시간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간호진단을 내리고 간호계획을 수립하여 간호를 수행, 평가하여 양질의 간호를 제공해야 하므로 다양한 형태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박영순, 2004). 교대근무는 병원현장에서 간호가 수행된 이래 현재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제도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교대근무는 간호사로 하여금 신체적 부적응, 개인 및 가정생활 장애를 초래하며, 이들의 직무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이직희망 비율을 높이는 이유가 되고 있다(전향숙, 2000).

교대근무는 서카디안(circadian rhythm)리듬의 변화로 인해 생리적,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문제, 사회활동 제약, 직무상 효율성 저하 등의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윤진상, 국승희, 이형영, 신일선 및 김인자, 1999). 이러한 교대근무 양상은 근무 시간, 근무조가 바뀌는 빈도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지만 크게 분류하면 빠른 교대근무, 느린 교대근무, 중간 교대근무 및 고정된 교대근무가 있다(임경희, 2002). 교대근무 중 특히 밤번 교대근무는 간호사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김순옥, 1997; Learthart, 2000), 밤 근무 시 서카디안 리듬이 바뀌게 되고, 신체 내부의 리듬과 외부환경의 차이로 인체는 부담을 느끼게 된다. 또한, 밤번 교대를 하게 되는 경우 환경에 적응하는데 생리적·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 가장 기민해야 될 근무시간 중에 심한 피로감, 빈번한 실수 및 성취도 저하, 사회활동의 제약, 수면장애, 수행능력의 저하, 식습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이숙희, 1999; 임경희, 2002; Fitzpatric, While, & Robert, 1999). 반면 고정근무는 서카디안 리듬의 적응이 최대로 이루어지며, 교대근무의 스트레스와 건강문제로부터 간호사를 구해주며 사회, 교육, 심리적이점이 있다(박영순, 2004).

빈번한 교대근무와 과중한 업무부담은 스트레스와 피로를 증가시키고, 특히 낮번 근무 및 초번 근무에 비해 간호사의 피로도가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이성자, 2001). 따라서 밤번 근무에 따르는 부담감이 간호사의 중요한 이직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들의 효율적인 밤 근무를 위한 개선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교대근무로 인한 서카디안 리듬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적응 문제는 업무의 부담감으로 연결되어 직업의 불만족 요인이 될 뿐 아니라 간호업무 발전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주게 된다. 임경희(2002)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떨어지는데, 여러 스트레스 요인 중 교대근무는 가장 큰 스트레스요인 중 하나라고 하였다.

교대근무는 밤에 자고 낮 동안에 깨어있는 습관적 리듬에 역행하여 내적 신체체계와 외적인 낮과 밤주기 사이의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건강상태와 직무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성자, 2001). 그러므로, 교대근무간호사의 서카디안 리듬의 교란을 최소화하고, 교대근무에의 적응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근무체제를 고안하는 것은 교대근무 간호사

주요어 : 건강상태, 직무만족도, 고정근무간호사, 교대근무간호사

1) 인제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교신저자 E-mail: nursmh@inje.ac.kr)

2) 일산백병원 간호사, 3) 상계백병원 간호사

투고일: 2007년 1월 19일 심사완료일: 2007년 2월 26일

의 건강증진뿐 아니라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아울러 근무 효과를 촉진시키고 간호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황애란, 정현숙, 강규숙 및 이규정, 1994).

교대근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건강상태(박영순, 2004; 임경희, 2002; Learthart, 2000), 피로도(김신정과 성명숙, 1998; 이성자, 2001), 교대근무 방향(황애란 등, 1994)에 대한 연구들이 있으며, 교대근무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건강상태와 직업만족도(임경희, 2002), 교대근무자와 고정근무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최영진, 1993), 교대근무간호사와 고정근무간호사의 건강상태(박영순, 2004)에 관한 연구들이 있으나, 교대근무간호사와 고정근무간호사의 건강상태와 직무만족도를 비교 조사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측정된 건강상태는 피로도, 신체적 증상 또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등으로 영적, 사회적 측면의 건강상태는 측정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정근무간호사와 교대근무간호사를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 영역의 건강상태와 직무만족도를 비교하고 이들의 건강상태와 직무만족도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교대근무간호사의 건강상태와 직무만족도를 높임으로써 간호사들의 이직률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정근무간호사와 교대근무간호사의 건강상태와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 두 집단의 건강상태와 직무만족도를 비교한다.
- 대상 두 집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와 직무만족도를 비교한다.
- 대상 두 집단의 건강상태와 직무만족도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용어의 정의

● 고정근무간호사와 교대근무간호사

고정근무간호사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낮 근무만 하는 간호사로, 본 연구에서는 주당 44시간을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 간호사를 말한다. 교대근무간호사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밤 근무를 하는 간호사로, 본 연구에서는 3-6일 간격으로 근무번이 변화하며 오후 10부터 익일 8시까지 근무하는 밤 근무를 최근에 경험하였거나 현재 하고 있는 간호사를 말한다.

● 건강상태

단순히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것에 머물지 않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로(대한간호학회, 1996), 본 연구에서는 일본 동경대학의 의학부 보건학과에서 작성한 것을 김윤신(1979)이 번안한 건강상태 측정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 직무만족도

자신의 직무 및 경험에 대한 평가로, 만족하는 심리상태(Locke, 1976)로, 자기직무에 대한 호의적 태도로 직무특성이 다양하고 업무가 명확할 때 발생하는 긍정적인 심리상태(Slavitt, Stamps, Piedmond, & Hasse, 1978)이다. 본 연구에서는 Slavitt et al.(1978)이 개발한 직무만족도 측정도구를 김숙자(1992)가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고정근무간호사와 교대근무간호사의 건강상태와 직무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비교연구이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5년 5월 16일부터 5월 25일까지 이었으며, 자료수집은 서울, 경기지역에 위치한 500병상 이상의 2개 종합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간호부 담당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작성법을 설명하고 기준에 맞는 대상자에게 간호부를 통해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는 총 200부를 배부하여 190부가 회수되어 95%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고정근무간호사 90명과 교대근무간호사 100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교대근무간호사는 일반간호사 또는 주임간호사로서 야간근무를 최근에 경험하였거나 현재하고 있는 간호사와 초년, 밤번을 제외한 낮번고정근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

● 건강상태 측정도구

건강상태 측정도구는 일본 동경대학의 의학부 보건학과에서 작성한 것을 김윤신(1979)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74$ 였다. 문항은 신체적 영역 10문항, 정신적 영역 7문항, 영적 영역 3문항, 사회적 영역 10문항으로 총 30문항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8$ 이었으며, 건강상태 정도는 Likert 척도

로(“매우그렇다” 5점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1점 까지)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 직무만족도 측정도구

직무만족도 측정도구는 Slavitt et al.(1978)이 개발하고 김숙자(1992)가 번역한 직무만족도 측정도구를 이용하였으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72$ 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75$ 였으며, 직무만족도는 Likert 척도로(“매우그렇다” 5점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1점 까지)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배분율로, 두군 간의 동질성은 t-test, χ^2 -test, 일반적 특성별 건강상태와 직무만족도의 차이검정은 t-test, ANOVA를, 건강상태와 직무만족도와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경기지역 2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임의 표출하여 선정하였으며, 대상자의 동질성 비교에서 근무경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하는데 제한이 있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결혼상태, 근무경력, 성격, 규칙적 운동유무, 보수만족정도, 현 건강상태, 서카디안 유형 등으로 조사 비교하여 t-test 및 χ^2 -test로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근무경력($p<.001$)을 제외하고는 두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

대상자의 연령범위는 22세에서 48세까지이며 이중 26세-30세 이하가 고정근무자는 46.2%, 교대근무자는 53.8%로 가장 많았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고정근무자는 61.1%, 교대근무자는 82.0%로 많았으며, 근무경력은 고정근무자는 3년 이상-6년 미만인 36.6%로 많았으나 교대근무자는 3년 미만인 63.0%로 가장 많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격은 두 집단 모두 기타로 응답한 경우가 50.0%로 가장 많았으며, 규칙적인 운동은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비교

(n=190)

특성	구분	낮번고정근무 실수(백분율)	밤번교대근무 실수(백분율)	t or χ^2	p
연령	25세 이하	5(5.6)	39(39.0)	-7.08	.052
	26-30세	43(46.2)	50(53.8)		
	31-35세	21(23.3)	8(8.0)		
	36세 이상	21(23.3)	3(3.0)		
결혼상태	미혼	55(61.1)	82(82.0)	3.78	.060
	기혼	35(38.9)	18(18.0)		
근무경력	3년 미만	4(4.4)	63(63.0)	-10.16	.000
	3-6년 미만	33(36.7)	22(22.0)		
	6-9년 미만	24(26.7)	11(11.0)		
	9년 이상	29(32.2)	4(4.0)		
성격	외향적	23(25.6)	27(27.0)	.07	.961
	내향적	22(24.4)	23(23.0)		
	기타(중간)	45(50.0)	50(50.0)		
규칙적 운동	유	12(13.3)	3(3.0)	4.51	.051
	무	52(57.8)	63(63.0)		
	중간	26(28.9)	34(34.0)		
보수만족	만족	4(4.4)	4(4.0)	3.27	.351
	보통	42(46.7)	51(51.0)		
	불만족	33(36.0)	40(40.0)		
현 건강상태	매우 불만족	11(12.0)	5(5.0)	4.12	.074
	건강	39(43.3)	23(23.0)		
	보통	42(46.7)	55(55.0)		
서카디안 유형	불건강	9(10.0)	22(22.0)	1.52	.310
	아침형	31(34.4)	10(10.0)		
	저녁형	59(65.6)	90(90.0)		

두 집단 모두 각각 57.8%, 63.0%에서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보수에 대한 만족정도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고정근무자는 46.7%, 교대근무자는 51.0%로 많았으며, 자신이 지각하는 현재 건강상태는 두 집단에서 모두 각각 46.7%, 55.0%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서카디안 유형은 저녁형이 고정근무자는 65.6%, 교대근무자는 90.0%이었다.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직무만족도 차이비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에서 근무경력 ($p<.001$)이 고정근무군과 교대근무군간에 차이를 보였으나, 일반적 특성별 건강상태와 직무만족도에서는 근무경력이 건강상태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따라서, 두 군의 건강상태와 직무만족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표 2>, 고정근무군의 전체 건강상태의 평균점수는 총 5점 만점에 2.65점이었으며, 교대근무군의 전체 건강상태는 평균 2.99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4.96, p=.000$). 건강상태를 영역별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신체적 영역은 고정근무군이 평균 2.73점, 교대근무군이 2.93점으로 교대근무군의 신체건강상태가 점수가 더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12, p=0.035$). 정신적 영역은 고정근무군이 평균 2.82점, 교대근무군이 평균 3.12점으로 교대근무 군의 정신건강상태 점수가 더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00, p=.003$). 영적 영역은 고정근무군이 평균 2.52점, 교대근무군이 평균 2.91점으로 교대근무군의 영적 영역의 건강상태 점수가 더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55, p=.000$). 사회적 영역은 고정근무군이 평균 2.49점, 교대근무군이 평균 2.98점으로 교대근무군의 사회적 영역의 건강상태 점수가 더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7.10, p=.000$). 두군 모두 정신적 영역의 건강상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신체적 영역이었으며, 고정근무군은 사회적 영역이, 교대근무군은 영적 영역의 건강상태가 가장 낮았다.

두 군의 직무만족도를 비교한 결과<표 3>, 고정근무군의 평균점수는 총 5점 만점에 3.42점이었으며, 교대근무군은 평균

3.52점으로, 교대근무군이 고정근무군보다 직무만족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3> 고정근무간호사와 교대근무간호사의 직무만족도 차이 (n=190)

	낮번고정근무 평균±표준편차	밤번교대근무 평균±표준편차	t	p
직무만족	3.42±0.46	3.52±0.35	1.64	.10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와 직무만족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와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표 4>, 고정근무군은 규칙적 운동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5$), 성격, 보수만족, 서카디안 유형에서는 직무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즉 매주 정해진 횟수만큼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군이 불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지 않는 군보다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격이 외향적이거나 내향적이지도 않는 군이 외향적인 경우보다, 자신의 보수에 만족하는 군이 불만족하는 군보다, 저녁형의 서카디안 유형을 가진 군이 아침형 군보다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교대근무군은 규칙적 운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1$), 보수만족에서는 직무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 즉,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보수에 만족하는 군이 불만족하는 군보다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직무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비교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직무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표 5>, 고정근무군은 건강상태와 직무만족도가 유의한 역 상관관계($r=-.458, p<.001$)를 보여, 건강상태가 양호한 경우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교대근무군에서는 건강상태와 직무만족도 간에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표 5>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직무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직무만족도			
	낮번고정근무(n=90)		밤번교대근무(n=100)	
	r	p	r	p
건강상태	-.458	.000	.026	.797
신체적 영역	-.312	.003	.068	.504
정신적 영역	-.441	.000	.110	.274
영적 영역	-.461	.000	-.042	.677
사회적 영역	-.369	.000	-.100	.323

<표 2> 고정근무간호사와 교대근무간호사의 건강상태 차이 (n=190)

	낮번고정근무 평균±표준편차	밤번교대근무 평균±표준편차	t	p
신체적 영역	2.73±0.64	2.93±0.63	2.12	.035
정신적 영역	2.82±0.70	3.12±0.67	3.00	.003
영적 영역	2.52±0.77	2.91±0.72	3.55	.000
사회적 영역	2.49±0.47	2.98±0.49	7.10	.000
전체 건강상태	2.65±0.50	2.99±0.43	4.96	.000

<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건강상태와 직무만족도

(n=190)

특성	구분	고정근무(n=90)						교대근무(n=100)					
		건강상태			직무만족도			건강상태			직무만족도		
		평균	표준 편차	t or F	평균	표준 편차	t or F	평균	표준 편차	t or F	평균	표준 편차	t or F
연령	25세 이하	3.07	0.45		3.71	0.64		3.02	0.43		3.47	0.35	
	26-30세	2.73	0.48	2.70	3.39	0.42	0.69	2.99	0.43	0.31	3.55	0.36	0.42
	31-35세	2.48	0.44		3.41	0.53		2.85	0.54		3.56	0.26	
	36세 이상	2.55	0.57		3.42	0.43		2.96	0.20		3.54	0.15	
결혼상태	미혼	2.73	0.50	1.20	3.44	0.51	0.27	2.99	0.43	-0.01	3.49	0.35	-1.85
	기혼	2.60	0.50		3.41	0.43		2.99	0.43		3.65	0.32	
근무경력	3년 미만	2.55	0.74	0.78	3.10	0.55	0.72	2.97	0.44	2.31	3.52	0.38	0.90
	3-6년 미만	2.72	0.46		3.46	0.52		3.16	0.32		3.50	0.31	
	6-9년 미만	2.66	0.53		3.39	0.37		2.85	0.49		3.56	0.30	
	9년 이상	2.56	0.50		3.44	0.45		2.67	0.44		3.53	0.10	
성격	외향적	2.47	0.53	1.88	3.10	0.33a	8.32*** a<b	2.92	0.42	0.73	3.54	0.29	0.40
	내향적	2.72	0.47		3.50	0.50b		2.95	0.34		3.56	0.40	
	기타(중간)	2.71	0.49		3.54	0.43b		3.04	0.47		3.49	0.35	
규칙적 운동	유	2.26	0.41a	4.33* a<b	3.27	0.66	0.88	2.87	0.44a	6.66** a<b	3.37	0.56	0.54
	무	2.72	0.48b		3.47	0.44		3.01	0.38a		3.54	0.34	
	중간	2.69	0.52b		3.40	0.40		3.75	0.61b		3.49	0.34	
보수만족	만족	2.27	0.64	0.17	3.72	0.32b	7.31*** a<b	2.74	0.20	0.51	3.70	0.32b	3.35* a<b
	보통	2.61	0.52		3.45	0.46b		3.01	0.40		3.63	0.34a	
	불만족	2.66	0.37		3.40	0.42b		2.99	0.45		3.42	0.34a	
	매우불만족	2.89	0.68		2.57	0.24a		2.94	0.71		3.42	0.20a	
현 건강상태	건강	2.54	0.48	1.92	3.37	0.52	0.59	2.99	0.45	0.98	3.45	0.28	0.48
	보통	2.70	0.50		3.43	0.36		2.94	0.42		3.54	0.37	
	불건강	2.87	0.57		3.56	0.63		3.10	0.45		3.53	0.36	
서카디안 유형	아침형	2.58	0.43	-0.93	3.27	0.41	-2.23*	3.07	0.41	0.61	3.49	0.19	-0.27
	저녁형	2.68	0.54		3.50	0.47		2.98	0.43		3.52	0.36	

*p<.05 **p<.01 ***p<.001

논 의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은 낮과 밤이 바뀌는 근무형태로 서카디안 리듬이 변화되고, 이에 따른 적응문제는 업무의 부담감으로 연결되어 직업의 불만족 요인이 될 뿐 아니라 간호업무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교대근무로 인한 교대근무자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객관적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에서, 교대근무 중 특히 밤번교대근무 시 간호사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건강상태가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본 연구는 고정근무 간호사와 교대근무 간호사의 건강상태와 직무만족도를 비교해 봄으로써 교대근무가 간호사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사의 건강상태를 증진시키고 이들의 직무만족도를 고취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교대근무 체제의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대상자의 건강상태는 교대근무자가 고정근무자에 비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박영순(2004)의 연구에서 고정근무자가 교대근무자보다 신체건강상태와 정신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이숙희(1999)의 연구에서 교대근무 관련 특성에 따른 신체 및 정신증상의 점수를 분석한 결과에서 밤번근무일수는 정신적 증상점수에서 유의성이 있었고, 현재 증상과 교대근무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교대근무는 밤낮에 대한 자연적 리듬이 맞지 않아 생리기능에 혼란을 가져와 서카디안 리듬, 심리의 기능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수면장애, 피로, 식욕부진, 우울 등 교대근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가 보고되고 있다(임경희, 2002). 특히 밤 근무 시 서카디안 리듬이 바뀌게 되고, 신체 내부의 리듬과 외부환경의 차이로 인체는 부담을 느끼게 되어 피로나 권태 등의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게 되며, 이와 같은 증상은 개인생활에 변화를 주게 된다(이성자, 2001).

대상자의 건강상태 영역 중에서 두 집단 모두 정신적 영역에서 취약함을 나타냈으며, 교대근무자의 경우 고정근무자보다 정신증상의 호소율이 높았다. 이는 교대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임경희(2002)의 연구에서 정신적 영역의 건강상태가 낮게 나타난 결과와 김수진(2003)의 연구에서 교대근무자는 비교대근무자에 비해 업무스트레스, 정서문제, 음주의 빈도가 높으

며 심리적인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교대근무가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밤 근무 기피현상과 이직의 이유에는 서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영순(2004)은 교대근무 중에서 밤번근무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며 밤 근무를 많이 하는 교대근무자는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밤 근무에 따르는 간호사의 부담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밤 근무를 위한 개선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대상자의 직무만족도는 교대근무자가 고정근무자보다 직무만족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고정근무간호사와 3교대근무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성자(2001)의 연구에서 고정근무군과 3교대근무군과의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직무만족도 점수가 교대근무자가 고정근무자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일반간호사나 주임간호사였으며, 교대근무자의 직무만족도가 이들의 근무경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결과와 Barton(1994)의 간호사와 조산사를 대상으로 고정근무군과 3교대근무 군을 비교한 연구에서 개인이 밤 근무를 선택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신체, 정신적 장애의 호소가 적은 것으로 보고한 결과와 반복적인 직무나 선택성이 없는 직무를 하는 사람의 이직률이 높다(Costa, Ghirlanda, Minors, & Waterhouse, 1994)는 사실을 볼 때, 고정근무자라 해도 업무의 유형에 따라 직무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교대근무자의 경우 건강상태와 직무만족도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임경희(2002)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는 교대근무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교대근무자의 직무만족도가 보수만족정도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것을 볼 때, 교대근무자의 직무만족도는 건강상태보다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업무관련 특성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직무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고정근무군은 건강상태와 직무만족도 간에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숙희(1999)의 연구에서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신체, 정신건강상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최영진(1993)의 연구에서 직무만족도가 높은 군에서 정신건강상태도 좋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정근무자의 경우 직무만족도를 높여 줄 때 건강상태는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직무만족 요소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보상이 주어질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에서 두 집단 모두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두 집단 모두에서 운동이 건강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교대근무자의 경우 운동이 이들의 건강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지만, 평균값의 차이가 고정근무자의 경우 보다 미미한 수준이며, 고정근무자는 건강상태가 직무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교대근무자는 그렇지 못한 결과를 볼 때, 교대근무자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추후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Dirks(1993)는 밤번고정근무자를 밤 근무를 5-8일 연속 시행하는 그룹과 1-4일 시행하는 그룹 간에 피로를 포함한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측정 한 연구에서 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밤 근무를 많이 하는 그룹이 더 적극적 대응을 하고 운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밤 근무 시 발생하는 서카디안 리듬의 변화로 인한 건강상태의 문제를 운동을 함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고정근무군의 경우 성격, 보수만족, 서카디안 유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대근무군은 보수만족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이는 교대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임경희(2002)의 연구에서 연령, 근무경력, 보수만족정도, 현 건강상태, 간호직에 종사할 예정기간, 간호직 선택 동기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Blegan(1993)이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가장 중재하기 쉬운 근무조건으로 보수, 승진, 직업의 안정성, 근무시간 등을 제시한 것으로 볼 때, 적절한 금전적인 보상체계는 고정근무간호사와 교대근무간호사의 이직률을 낮출 수 있으며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간호사 업무의 특성상 교대근무를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3교대 근무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들에 대한 보상으로 합리적인 보수체제를 마련한다면 이직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서카디안 리듬의 교란을 일으키는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의 건강상태는 교대근무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영적, 사회적 영역의 요인을 포함하여 이들의 건강상태를 측정하여 비교하였기 때문에, 교대근무 간호사가 고정근무간호사에 비해 단순히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영적, 사회적 측면의 건강상태도 취약함을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또한, 교대근무간호사의 건강상태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운동 외에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자를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며, 교대근무자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근무형태에 따라 차별화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 론

본 연구는 고정근무간호사와 교대근무간호사의 건강상태와 직무만족도를 비교 분석하고 이들의 건강상태와 직무만족도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이를 간호사의 인사 및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간호사의 이직률을 낮추고 간호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지역에 위치한 500 병상 이상의 2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고정근무간호사 90명과 교대근무간호사 10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는 교대근무군이 고정근무군보다 좋지 못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고정근무군은 건강상태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건강상태는 고정근무군과 교대근무군 모두 규칙적인 운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직무만족도는 고정근무군의 경우 성격, 보수만족, 서카디안 유형에서, 교대근무군의 경우 보수만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교대근무군에서 고정근무군보다 건강문제 호소율이 높게 나타나 밤 근무로 인해 이들 간호사의 건강이 나빠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효율적인 간호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간호사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의 직무만족에 보수만족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교대근무 시 운동이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 간호사의 건강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을 권장할 것을 요구한다.
- 간호사의 보수만족정도가 이들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수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수진 (2003). *대학병원 근무간호사의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포천중문의과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숙자 (1992).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와 이직의사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순옥 (1997). *종합병원 간호사의 교대근무와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신정, 성명숙 (1998). *병원근무간호사가 지각하는 피로*. *대한간호학회지*, 28(4), 908-919.

김윤신 (1979). *질문지 건강조사표에 관한 THI 건강조사표의 실용화*. *산업의학*, 18(1), 18-28.

대한간호학회 (1996). *간호학대사전*. 서울: 한국사전연구사.

박영순 (2004). *교대근무간호사와 고정근무간호사의 건강상태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진상, 국승희, 이형영, 신일선, 김인자 (1999). *순환교대근무와 주간고정근무간호사의 수면 양상, 직무만족 및 삶의 질*.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 38(4), 713-721.

이성자 (2001). *밤번고정근무간호사와 3교대근무간호사의 피로도, 직무만족도, 간호업무수행정도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숙희 (1999). *종합병원 간호사의 교대근무와 건강상태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경희 (2002). *교대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건강상태와 직업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향숙 (2000). *병원 간호사의 근무형태와 직무만족 관계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영진 (1993). *교대근무간호사와 고정근무간호사의 건강상태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애란, 정현숙, 강규숙, 이규정 (1994). *임상간호사의 교대근무방향이 circadian rhythm 변화에 미치는 영향*. *기본간호학회지*, 1(1), 775-781.

Barton, J. (1994). *Choosing to work at night : a moderating influence an industrial tolerance to shift work*. *J Appl Psychol*, 79(3), 449-454.

Blegan, M. A. (1993). *Nurse's job satisfaction: A meta-analysis of related variables*. *Nurs Res*, 42(1), 140-151.

Costa, G., Ghirlanda, G., Minors, D., & Waterhouse, J. (1994). *Evaluation of a rapidly rotating shift system for tolerance of nurses to night work*. *Int Arch Occup Environ Health*, 65, 305-311.

Dirkx, J. (1993). *Adaptation to permanent night work : the number of consecutive work nights and motivated choice*. *Ergonomics*, 36(1-3), 29-36.

Fitzpatric, J. M., While, A. E., & Roberts, J. D. (1999). *Shift work and its compact upon nurse performance : current knowledge and research issues*. *J Adv Nurs*, 29(1), 18-27.

Learthart, S. (2000). *Health effects of internal rotation of shift*. *Nurs Stand*, 14(47), 35-46.

Locke, E. A. (1976). *The nature and cause of job satisfaction*. *Hand 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 psychology*. Chicago : Rand McNally.

Slavitt, D. B., Stamps, P. L., Piedmond, E. B., & Hasse, A. M. (1978). *Nurses satisfaction with their work situation*. *Nurs Res*, 27(2), 114-120.

A Study of Health Status and Job Satisfaction of Nurses on Day Shift and Nurses on Night Shift

Sung, Mi-Hae¹⁾ · Kim, Hyun Ju²⁾ · Han, Young Mi³⁾

1)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Inje University

2) Staff Nurse, Ilsan Baik Hospital, 3) Staff Nurse, Sangae Baik Hospital

Purpose: This study is conducted to compare and analyse the health status and job satisfaction of nurses. **Method:** The subjects were a group of 90 nurses on fixed day nurse and the other group of 100nurses on night nurs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sed by using the SPSS WIN(10.0) program for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χ^2 -test,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Resul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years in services. In nurses on day shift, there was a inverse correlation between the health status and job satisfaction. And in nurses on day shift, job satisfaction levels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personality, satisfaction to pay, and current health status. In nurses on night shift, nurses' job satisfaction levels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satisfaction to pay. **Conclusion:** It was confirmed that health of nurses is greatly affected by shift work. so, it is very important to maintain and promote their health status in nurses on night shift. We must find out the factors that greatly affect health of nurses, and continuously make an effort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Key words : Health status, Job satisfaction, Nurses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Sung, Mi-Hae

Department of Nursing, Inje University

633-165, Gaegeum-dong Busanjin-gu, Busan 614-735, Korea

Tel: 82-51-890-6825 Fax: 82-51-896-9840 E-mail: nursmh@inje.ac.kr